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김 지 원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김 지 원

인 준 서

김지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2004년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삶의 현장으로부터 촬영한 이미지를 모티브로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오늘날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외적인 세계에서는 감성보다 지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인간관계나 인간의 모습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 되면서 인간의 가치는 시장 경제의 논리 내에서 상품처럼 평가 받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전면적이고도 보편적인 인간 소외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하지만 지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내적 세계에는 인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시 했던 상황들, 행동들과 표정들을 정지시킴으로서 일상 속 사람들에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자신을 용해시키며 풀어나가고자 하는 인간 내면세계를 꽃의 형상을 도입하여 내적 감성을 표면위에 나타나길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있어 예술표현은 개인의 경험이 다채로운 것만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와 공간표현은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공간 속의 공기,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일상인으로서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어둠, 현실의 공허를 나타내며 일상인의 건조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에서의 불안한 심리와 감정이 드러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표현세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 작품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데 그 의의를 갖고자 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현대인의 일상	2
1) 일상의 정의	2
2)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소외현상)	4
2. 인간의 전형화	6
1) 현대사회의 인간심리	6
2) 작품 속 꽃의 이미지와 상징성	8
III. 표현 형식	10
1. 사진 이미지의 차용	10
2. 이분화된 색채와 상실과소외의 공간	12
IV. 작품분석	15
V. 결론	27

도 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284×214cm),Silk screen, Digital print,2004.	15
<작품2>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Silk screen,2004.	16
<작품3>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50×35cm),Silk screen,2004.	17
<작품4>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18
<작품5>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200×70cm),Lithograph,2004.	19
<작품6>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20
<작품7>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21
<작품8>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22
<작품9>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23
<작품10>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100×70cm),Lithograph,2004.	24
<작품11>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200×110cm),Silk screen,2005.	25
<작품12>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200×110cm),Silk screen, Digital print,2005.	26

I. 서론

화가는 보통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그려냄으로서 자신을 표현한다고 한다. 즉,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경험과 시각을 통해 작품에 언어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언어라고 함은 이미지화된, 혹은 기호화 되어 하나의 화상이나 이미지로 읽혀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림에서 터치나 형태, 색감은 바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언어이며 한마디로 예술은 예술가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행동한 모든 것을 조형적 형식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이를 표현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투영시킨다.

지금은 정신에 비해 물질이 우위를 정한 시대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보다 보이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물질문명으로 인한 인간의 불안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속박된 감정적 소통 까지도 단절시키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기계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전체적인 인격체로서 대우받기보다는 개인의 생산 능력으로 평가 되는 인간의 가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인간 소외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적 세계에서 오는 상실감을 작품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불안 해 하는 인간의 외적인 세계에서 탈피하고픈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 하는 방법을 모색 하였다. 그리고 색채와 공간 표현으로 인간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며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또 꽃을 통한 삶에 의지 표현을 상징 이미지로 삼아 내적 세계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옷을 통한 외적 세계에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인의 일상

1) 일상의 정의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실 속에서 특별한 어떤 것, 보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하루하루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들을 관찰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 일상의 의미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다. 거대한 산업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삶의 궁극단위인 일상이 무시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시간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하찮게 보이기까지도 한다. 하지만 낮익고 무정형이며 긴장의 반대에서 있는 우리의 일상은 관성으로 버터가는 소모적인 삶의 이름이 아닌 가치와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상은 크게 대접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양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이분법적 사고가 최초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 희랍에서는 일상생활을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적 삶과 반대되는 삶, 즉 경제적 부, 명예, 맛, 세속적 사랑 등의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부정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 성립이후 일상은 계몽주의 영향과 신분제 사회의 붕괴에 따라 겨우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즉 인간의 행복은 이 세상의

일상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상이야말로 지고의 영역이자 유일한 성취의 영역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며¹⁾ 그동안 무시되거나 잊혀졌던 일상이라는 주제가 사회학과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복원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 갔다.²⁾

이렇듯 일상의 재조명은 이러한 근대적 이성에 대한 지적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적인 반성이란 역사의 변화와 발전, 정치적 혹은 경제적 큰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축적된 일상 속에서 배태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해방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의 소외된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상에 대한 연구는 비통상적인 사회영역보다는 통상적인 사회영역에 역사에서의 중요한 국가적 행위보다는 매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또한 올바르게 참된 의식 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소박한 그리고 때로는 숙고되지 않는 잘못된 체험과 사유의 총괄적 개념인 일상의 의식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일상의 늘어지고 수동적이며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숨은 뜻,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별다른 일탈이나 삐걱거림 없이 지금의 모습대로 유지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가 분주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1) 김상우, 시상전시-인상과 서사, 「사진비평」 2000, 여름호, pp.36-37.

2) 김승곤 외, 「한국사진이론의 지형」, (서울: 홍 디자인 출판부, 2000), p.134.

2)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소외현상)

장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의 삶을 “현실자체가 사라진 현실”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현대 사회를³⁾ “믿음을 소비하는 사회 한마디로 육체가 없는 놈만 가진 인간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비판 속에서 현대인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변해온 도시문명을 거쳐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되어있으며 인간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의 양 속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하며 한 시대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일상 속에서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서로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모두들 유리되어 있고 소외된 현실에서 고독과 소외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화려한 간판이 내걸리지만 그것이 뿌듯한 즐거움을 선사하지는 않으며 볼거리는 많아졌지만 눈길이 머물만한 대상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도시경관이다.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된 근대화 와 도시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시는 생활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만을 위해 획일적으로 도구화 되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인들에 있어 ‘일상’이란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것일까?

일상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지켜워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해 하는 이상한 물건이며 결코 흥미롭거나 새롭지만은 않다.

평범한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공허한 생활 자체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비해 일상인의 모습은 반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하나의 부품처럼 지루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벗어나게 될까봐 불안함을 느끼며 생활한다. 왜냐하면 일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실직이나 퇴직

3) 유근평 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3), p.12.

을 의미하며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상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벗어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이 일상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텅빈 인간들
우리는 채워진 인간들
서로가 기대어서
아-두뇌조각은 짚으로 채워 졌는가
형태 없는 모습 색깔 없는 그림자
마비된 생명. 움직임 없는 제스처..

1925년 ‘T.S 엘리엇’가 쓴 시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수의 현대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각자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개성은 무시한 채 어떤 집단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지배되어 그 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에 있어 스스로 어떤 행사 할 수 있는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다.

4) 앙리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p.13.

2. 인간의 정형화

1) 현대사회의 인간심리

현대사회의 인간 앞에 가로놓인 중대한 문제는 어떤 것 일까

그리고 인간의 외적세계와 내적세계에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E.Fromm)은 인간의 외적 세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지만 20세기에는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현대의 인간이 자기소외와 자기 상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그의 말처럼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위적으로 그들의 개성을 상실 시키며 만들어진 어떤 인간 모델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70억에 가까운形形色색의 인간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연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간을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대체 어떠한 뜻에서 일까 그것은 현대의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즉 비인간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인간 외적세계의 소외의 문제이다. 소외의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상실감 불안감 절망감 비인간화 냉담 사회해체 고독감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감 고립감 비관주의 등 심리상태 혹은 사회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반적 개념의 용어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되어 내려 온 현상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소외라는 용어가 우리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보편화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에리히 프롬(E.Fromm)에 있어서의 소외의 의미는 오늘날에 사회적 성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소외개념이며 그는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형성되고 기초되어진 소외개념을 현대 사회의 맥락 가운데서 좀더 광범위 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E.Fromm)이 말하는 소외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서 경험하는 경험 양식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원화(疏遠化) 된 것 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 던가 또는 자기 행위의 창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도리어 주인공으로 되고 인간은 이것에 복종하며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 까지 하는 것이다.⁵⁾ 다시 말해서 소외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이나 풍부성의 적극적인 담당자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산한 본질을 투사하여 객관화 시킨 한 개의 물체, 즉 자기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한 개의 빈약한 물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의 문제는 기계문명의 주체자인 인간이 물리적 풍요를 누리지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 하고 말았으며 현대사회는 개인적인 정체성을 빼앗아 가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인간을 하나의 기능 기계적인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개인의 성품이나 개성 인격을 재화 지위 재능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지속 시키고 인간관계가 수량화되며 권력과 명성을 위한 경쟁에서의 긴장선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내적세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생존의 의미라든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한다는 중요성(the importance of being himself)이나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 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자아를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내적세계의 모습이다.

미국의 소설가 Saul Bellow는 인간의 자아상실과 왜소화를 당연시하는 시대적

5) Erich Fromm, 「Sean Society」, 김병익 옮김 (서울: 범우사, 1994), p.134.

풍조에 동조하기를 거부 했으며 “현대에 와서 드러난 많은 모순 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은 회복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다. 즉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과 재생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었으며 기계화된 사회와 비인간화 되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에 기초를 둔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본인 또한 외적세계에서는 물질세계에서 유리된 극심한 소외감을 맛보며 살아가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인간에게 정신적 충족된 삶을 가져다줄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며 동시에 위대해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낙천적인 꿈을 뜻한다. 즉 이상과 현실의 부조리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개개인마다의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인간 내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긍정의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2) 작품 속 꽃의 이미지와 상징성

회화를 순수한 표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외형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 자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감정을 조형적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상징은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 이미지의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실재를 드러내는 인간의 표현 수단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표현하고 각성 시키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용은 그의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할 수도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적(冠禮的)이고 분명한 의미만이 아니라 특정한 함축(含蓄)을 가지고 있는 용어, 이름, 심지어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⁶⁾ 이렇듯 상징이라는 용어는 유추적으로 가사의 세계 곧 물질세계가 연상의 힘에 의하여 불가사의 세계 곧 정신세

6) 칼G.융, 「인간과 상징」,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5), p.17.

계와 일치하게 되는 표현 양식이며 그것이 지칭하는 일차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 할 수 있으며 역동성을 가지고 작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내용을 뜻한다.

이처럼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개념적인 상징 이미지가 표출 되어진다. 그리고 작품 속 꽃의 이미지는 삶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감성들의 상징적 표현이며 자아의 표현 매체로서 현대문명 속의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상을 꿈꾸지 못하고 혹은 이상을 포기해 버리며 구속당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내면세계에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이상을 품고 살고 싶은 현대인의 희망의 꽃을 물질적인 옷을 통한 외적세계에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의 다양한 감정을 대변하는 매체로써 외부적인 인간에 모습에 나타나는 사랑 분노와 배신감 소외 외로움이라는 정서와 상 반대 되는 정신적인 희망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저마다 사적으로 고립되어 복제된 행복이미지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순수한 이상을 나타내고 싶다. 또 일상에 파묻혀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억과 그 기억들의 흐름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변해 가는 어릴 적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온갖 내면세계의 표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상생활의 본질적인 내면을 재현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해 나타내고자 한다.

Ⅱ. 표현내용 및 방법

1. 사진 이미지의 차용

카메라의 렌즈는 우리의 의식이 미칠 수 없는 현실의 심부(深部)를 물리적인 정확성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렌즈는 육안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기억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실의 세부까지 필름이라는 물질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 데는 사진만큼 효과적인 매체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미 스러져버린 시간이 언제나 현재라는 시점에서 재현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개념을 자각하게 한다.

열려진 시각적 매체로서 등장하는 사진은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환기시키며 작업을 진행하도록 자극해준다. 그리고 현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며 단절된 순간의 모습을 재현하고 객관적 현실로 고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진은 시간의 이용 대상으로 취급되며 지나간 시간 해석의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찰자의 눈으로 하여금 우리들 주위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한국 면을 잡아 한 장면만을 고정 시키는 것이다.본인 작업 속 도시 모습에서는 감각 상실과 아픔을 본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만나고 희망을 찾으려 하며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도시의 성질, 사람들의 본성, 우리의 시선 등이 어지러이 얽혀있다. 그렇게 얽힌 실타래를 사진으로 하나씩 풀어내고자 하며 그렇게 발견하고 체득하고 응시해서 재현한 이 사진에 들어와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에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다.⁷⁾ 그리고 확대 복사는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

해내는 작업 과정이고 흑백 이미지는 사진집에서 차용해 오기도 하고 직접 사진 촬영을 통하여 복사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이미지 속에서 '선택'한다는 개념을 내포한 것으로 대상을 '그린다'는 방법에서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영역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진 이미지는 하나의 사물이 사물 그대로 있을 때는 순수한 하나의 사물 이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 표현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사물 자체는 아니며 하나의 사물이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사진으로 찍힌 사물은 이미 사물이 아닌 사물의 이미지, 의미이다. 이러한 사진 이미지는 확대 복사로 더욱 구체화되는데 복사는 수차례의 확대 복사 과정을 거쳐 사진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톤을 점점 파괴시키고 재구성 하여 배열함으로서 유연성이 가미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본인 작품이 인간소외의 불안한 심리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진에서 얻은 형상을 전사를 통해 재구성 하였고 복사된 이미지 위에 목탄 아크릴 물감 등을 첨가하는 방법이나 기존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삭제 하거나 문지르기 등으로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교정을 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사물이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다.

7) 수잔손탁, 「사진이야기(On Photography)」, 유경선 옮김, (해냄, 1973), p.193.

8)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열화당,1990), p.175.

2. 이분화된 색채와 상실과소외의 공간

예술을 통하여 작가는 색채에 감정을 담아 자기가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을 하나의 언어로 삼아 자기 표현방식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표현할 길이 없는 상태'를 극복하고 외부로 번역하는 수단을 발견하며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 처럼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색채는 작가의 조형적 언어로서 인간의 영혼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되며 작가의 내면세계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필연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채는 물체에 예속되어 그 성질을 설명하는 기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감각과 정신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물체의 실재성에서 독립하여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으로서 색채의 자율성을 말한다. 즉 색채의 자율성은 색채 자체가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서 작용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정의 세계로 이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칸딘스키의 작품에 가치를 내용의 풍부함, 표현의 힘, 그리고 정확성에 두고 예술은 인간성을 정신화 하고 정신적인 분위기를 창조하는데 기여 한다고 한다. 그리고 발덴(HarbarthWalden)은 색채들이 어울려 나타나는 형태는 하나의 표현으로 창출 되는데 이것은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는 영혼의 움직임 이라고 표현 하고 있으며 색채는 지각된 대상에 의도하고자 하는 감정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로 인간 정신을 더욱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색채의 정신성을 화면에 도입 시켜 본인 작품에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은 흑색과 꽃무늬라는 이분화된 색채가 등장한다. 흑색은 여러 작가들에게 표현의 도구가 되어주고 있으며 때로는 표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칸딘

스키의 경우 흑색은 큰 슬픔이나 죽음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희망이 없는 영원한 침묵으로 가장 음향이 없는 색으로 인식 했고 뭉크에 작품에서는 흑색을 죽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콜비츠의 작품에서 또한 흑색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표현해 내고 있다. 즉 본인 작업에서 표현되는 흑색에 의미는 현대 문명 속에 범람하는 현란한 이미지 속에서 산업 도시 혹은 기계문명으로부터 흡수, 혼합되어 버린 기계적인 인간에 현실적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흑색과는 대조적인 꽃무늬 색채는 개인마다의 마음 속 낙원을 찾아주고 싶었고 인간의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는 현대 사회 속에서 내적인 면을 바라보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싶다. 이처럼 본인 작품 속 색채는 감정적 언어로서 작품의 내용을 비현실적인 형태로 형상화하여 이에 내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누출되었으며 정신적 표현위에 어둡고 강렬한 색채의 결합을 선택하여 인간소외의 모습 속에 희망을 주고 싶은 작가의 내적 표현을 부각시켰다.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감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적 공간으로 이 공간은 미술 영역에 있어 작품의 균형, 구성, 감정, 시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점, 선, 면, 색, 형 등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무한한 포용력을 지닌다. 공간은 그러한 요소들과 때로는 조화를 이루어 자체로도 조형요소가 되기도 하며 시간과의 만남을 이루기도 한다.⁹⁾

기디온(Sigfried Giedion)은 그의 저서 「예술의 기원(The beginning of Art)」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간(空間)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예술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예술적 발언은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나 인간에 대한 세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발언은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¹⁰⁾ 라고 말하였다. 그에 말에 나타난 바와 같

9) 김복영, 「현대 공간의 조형물」 홍익미술3호, 1974, p.65.

10) 상계서, p.61.

이 행위(行爲)나 예술(藝術) 모두는 자기의 환경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공간 환경에 대한 반응은 심리적인 공간 표현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합된 이미지, 화면에 색에 의한 분위기를 표현된다. 이렇듯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영역에는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본인 작품 또한 공간이 존재한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모든 예술적 주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그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작품 개체의 내용을 대변 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또한 우리의 삶은 공간 속에서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공간 속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재방식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감성 공간이며 감성공간은 감성 지각된 모든 자연이나 사물, 그리고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장으로 유동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생성적 공간이며 이는 정신 내면의 공간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공간성과 밀접한 관계와 더불어 화면을 무채색으로 처리 했으며 이것은 현실에 불안과 공허가 항상 존재 하는 우리들에 일상 공간이며 뒤쳐진 정신문명과의 메울 수 없는 간격에 따른 상실감과 소외감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IV. 작품분석

【작품 1】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Silk screen, Digital print. 284x214cm. 2004

나는 늘 착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겪어온 경험으로 내가 맺은 인연과의 관계로 내가 열망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심 한다. 그래서 판독하기 불가능한 혼재된 공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본인에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다.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기법을 이용하여 비개성적이고 기계적인 인물들을 표현하기에 적합 하였으며 인위적인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작가 본인에 생각을 적어 작품 속 이미지에 첨가 하였다.

【작품 2】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Silk screen. 100x70cm. 2004

이 작품은 본인이 복제 이미지를 이용 하게 되는 초기 작품이다. 내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 속 사진을 차용하여 분주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공간을 흰색으로 처리 하여 내적으로 무한한 현실적 공간의 가능성을 던져 주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자아의 표현 매체로서 꽃 이미지는 수많은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과 현실의 고정된 틀에서 탈피 하려는 자아의 내면세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3】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Silk screen. 50x35cm. 2004

현대사회의 자동화로 모든 것은 더욱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현대인들도 그 빠른 속도의 걸음을 맞춰 따라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를 따라 가기 위해 기계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다른 것은 생각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머릿속에 다른 것에 대한 공간은 사라져 버렸다. 밀려오는 무력감과 그로 인한 방황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작품 4】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100x70cm.2004

현대 사회가 거듭 발전하는 속에서 우리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현대사회는 옛날보다 더욱 빠르고 편리해 졌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세계가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익에 치중하는 것, 바쁜 생활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항상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이기심, 잃어버린 인간성 등이 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끔 느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본인의 바램을 나타내었으며 공허한 생활 감정만을 지니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작품 5】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200x70cm.2004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은 작가가 길거리 시장 등에서 현대 사회의 진 모습이 드러나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 촬영된 인물들을 모델로 하여 그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인물들이며 이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 진실에 도달하려는 모습이고 그 속에 실루엣을 통한 익명성 뒤에 감추어진 소박한 인물을 표현 하였다. 그리고 석판화라는 판화적인 특징을 살려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크레용을 이용하여 기존에 이미지인 인간에 정신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해주는 기법을 통해 주관적인 교정을 해주었다. 그리고 인간 내면세계에 숨어 있는 본인에 모습을 외적인 공간에서도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위적인 옷을 통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작업 하였다.

【작품 6】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Lithograph. 100x70cm. 2004

현대화의 거대한 뒷 그늘 속에 남아있는 인물에 뒷모습에는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
에 뒤처지고 밀려버린 인간에 대한 상실감, 상처들이 있으며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본인은 뒷 그늘
속에서도 현실적 공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본인에 모습을
표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흑이라는 색채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의 어둡고 무거운
현실적 공간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나타내었다.

【작품 7】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70x100cm.2004

반복적인 일상을 겪으면서 더욱 깊은 소외와 고독, 상실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 또한 이런 상실감 속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싶어 하며 진정한 인간적인 모습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항상 현실적 공간 속에서만 가능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을 향해 항상 바라보고 꿈을 꾸는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으며 아쉬웠던 점은 정신적 문명으로 메울 수 없는 현실적 공간에 깊이감을 잘 표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작품 8】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100x70cm.2004

어두운 현실적 공간을 극적 효과를 위해 어두운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에서도 행해지는 무수한 사건을 포착하여 주체성을 상실한 존재로서 그 성격이 모호하고 익명적인 현대인의 이중적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모두들 내적 세계에 대한 모습을 감추고 누군가를 향해 주시하고 있으며 서로서로에 아픔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모습 속에서 나에 모습을 찾는 작업이다.

【작품 9】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100x70cm.2004

본인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 속에 사람들에 고독과 소외를 바라본다. 그 속에서 사람들에 위태로운 모습을 흑백으로 표현 하였으며 인물들은 거대한 조직체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공적인 복제품을 입고 있다. 이런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사이엔 함께 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이며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 사이엔 침묵만이 깊게 내려 앉아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침묵의 장소에서 그들을 해방 시키고 싶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꽃무늬 천을 차용하여 인간의식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내적 자의식을 꺼내 주고 싶다.

【작품 10】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Lithograph.100x70cm.2004

사람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하다. 그리고 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능률을 최대한으로 하려는 관료제는 현대 조직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합리성과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엄격한 위계구조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연대의 결핍을 느끼는 존재들을 표현 하였다. 그리고 위계질서 안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지만 인간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길 바란다.

【작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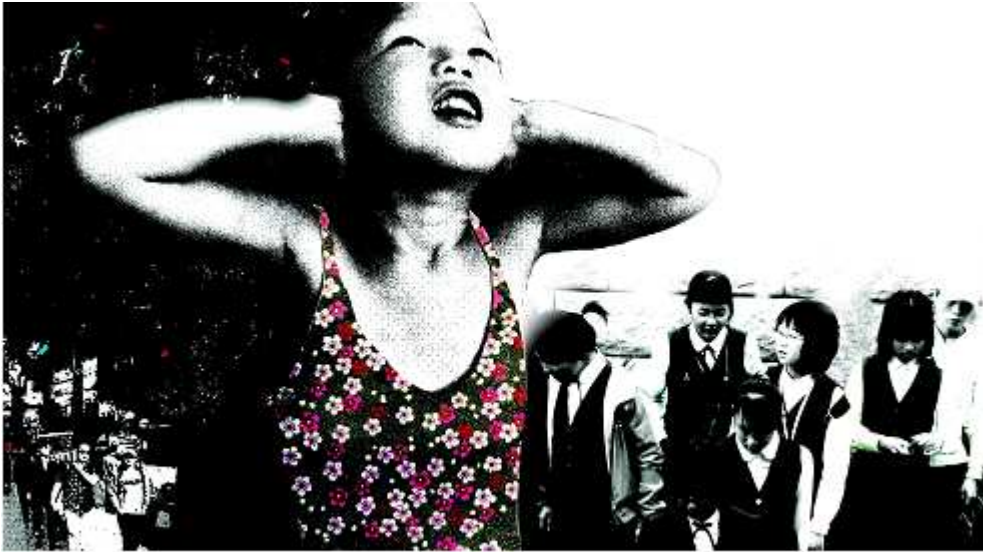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Silk screen.200x110cm.2005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에서도 행해지는 무수한 사건을 포착하여 물질만 남고 인간에 모습에 화려하지만 어딘가 낯설고 촌스러운 모습에서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작품 속 사람들은 불안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위장 한다. 그래서 화려하지만 왠지 모르는 그 이면에 왜소함을 감추고 있는 이중성을 표현 하였다.

【작품 12】



반복적인 일상 화려한 일상. Silk screen, Digital print. 200x110cm. 2005

일상적인 사고의 과정 속에서 개인주의적 사고의 팽창과 물질만능주의 및 도덕적 상실 등으로 인해 인간이 사물화 규격화 획일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각박해져가는 도심 속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생명감 순수함을 동경한다. 이 기억 속에는 수많은 순수의 대상물들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본 연구자에게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대상물이 존재하고 꽃은 어린시절에 대한 희망과 동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램의공간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과 표현 형식으로 나눠 서술하였으며 논문Ⅱ에서는 현대인의 일상과 인간의 전형화를 나타내었고 논문Ⅲ에서는 표현형식으로 사진이미지의 차용과 이분화된 색채와 공간표현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인간은 그가 살았던 사회와 문화 정치 제도 등과 불과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위 환경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예술가는 사회적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자신의 감정과 정서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예술은 단순한 개인의 창조적 행위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사회를 떠난 개인이 존재 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바람직한 회화의 주제는 화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도 지적인 관심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 사회와 대중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의 물질적인 수요를 과거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생활의 편리와 물질적 풍요가 혜택만을 준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는 인간 본연의 주체성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점차 망각해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익명의 군중인 타인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겉으로는 내색 하지 않고 당당한 듯 자신에게 살아가지만 일관성 있는 자아를 유지 못하고 여러 개의 인격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작업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관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 하지는 않는

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집요하게 찾고 본질적인 인간 내면의 본성에 대해 나타내었다. 본인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작업에 대한 동기와 주제 의식에 대하여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글로 정리하여 봄으로써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표현의식에 깊이를 더하고 표현 방식에 있어 나만의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자기화 시키는 작업이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끊임없는 내적 성찰을 통해 본인 작업을 통한 진지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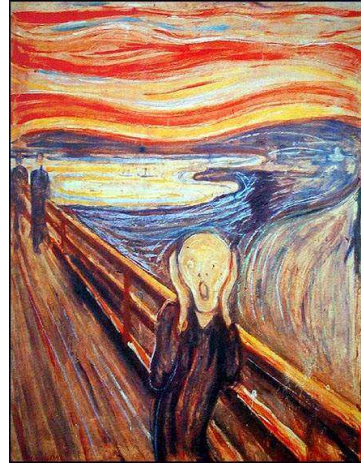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김상우, 시상전시-인상과 서사, 「사진비평」 2000, 여름호.
- 김승곤 외, 「한국사진이론의 지형」, 홍 디자인 출판부, 2000.
- 수잔손탁, 「사진이야기」, 유경선 옮김, 해돋이, 1973.
-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서울:열화당, 1990.
- 김복영, 「현대 공간의 조형물」, 홍익미술3호, 1974.
- 유근평·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2.3.
- 앙리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주류.일년.
- Erich Fromm, 「Sean Society」, 김병익 역, 서울: 범우사, 1994.
- 칼G.융, 「인간과 상징」, 서울:도서 출판 까치, 1995.

도판



【도판1】 몽크 '생명의춤' 1925



【도판2】 몽크 '절규' 1893



【도판3】 골비츠 '죽은아이를 안은여인' 1903



【도판4】 르동 '무한대로 여행하는 이상한 풍선과 같은 눈' 1903

ABSTRACT

Ordinary Day, Colorful Day

Kim, Ji Won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imed at studying ordinary and bright daily lives with the motive of images that I photographed in the living life on my works produced in 2004.

Today, since material civilization developed and industrialization increased, a sense has been emphasized rather than a sensibility in the superficial world. As a result, human relationships and appearance are swayed by material goods and the community changed into individualistic society. Eventually, human value is evaluated like products within the logic of market economics and men are controlled by human alienation, which is extensively and universally spreaded in the modern society. However, we can feel the human' sensibility in the inner world hidden behind the sense.

I brought situations, behaviors and expressions, which I had taken for granted because they happened around me all the time, to a standstill.

Then, adopting an image of a flower to express human's inner world that retains double characters and tries to dissolve themselves in the society, I demonstrated the flower as the symbol of hope that desires to express its inner sensibility.

The expression of art in the modern society is revealed in a variety of expression styles as much as an eventful diversity of individual experiences. Even in the expression methods, there exist varied and individual approaches, which cannot be compared to previous works.

In my works, the expression of color and space forms the air and ambience of the space not the space as a background. This atmosphere exhibits a nervous state of mind and emptiness of darkness and reality that human feel in a daily life and reveals the anxious feelings and emotions along with the dry and enervate mood.

This thesis provided me the opportunity to reflect my view on expression. I believe the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which it can bring fresh driving force to my future activity.